

# 비블리안데르의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의 운명에 대하여\*

안재원\*\*

## [초 록]

이 글은 테오도르 비블리안데르의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에 대한 것이다.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1548년 스위스 추리히에서 출판된 비블리안데르의 책의 운명에 대한 서지학적인 관찰이다. 책은 원래 프랑스 칸시의 의사였던 필립 뒤 두웨가 세운 개인 도서관의 소장품이었다. 하지만 책은 도난당해서 독일의 어느 고서점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착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 참전한 어떤 영국 군인이 책을 영국으로 가져가서 아동 환상 동화 작가인 Alan Garner씨에게 전해 주었다. Alan Garner씨는 2020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비블리안데르, 필립 뒤 두웨, 언어, 문자, 이성, 종교, 바벨탑  
Bibliander, Philippe du Douet, Language, Letter, Reason, Religion, Babel

년 4월 14일에 마침내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에 돌려주었다. 다른 하나는 이 책의 내용적인 특징에 대한 고찰이다. 이 책을 통해서 비블리안데르스는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나랏말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일갈하였다. 이 책은 학술적인 의미는 서양 고대의 문법학이 근세의 언어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1.

“책에도 운명이 있다.” 로마의 문법학자 테렌티아누스(Terentianus Maurus, 서기 2세기 활약)의 말이다. 이 말은 이 말의 주인보다 더 유명하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면서 말은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운명이었을 것이다. 말의 최초 모습은 이랬다.

독자의 이해 능력에 따라 책의 운명도 결정된다.

Pro captu lectoris habent sua fata libelli.<sup>1)</sup>

언제부터인지 이 말은 머리에 해당하는 “독자의 이해 능력에 따라”(pro captu lectoris)가 떨어진 채, “책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habent sua fata libelli)는 몸에 해당하는 부분만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sup>2)</sup>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나름 “머리가 잘리는” 자기 희생도 한 몫 거들었을 것이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말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책도 자신만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의 뜻으로 말이다.

이런 뜻에 어울리는 책이 한 권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테오도르 비블

---

1) Terentianus Maurus (서기 3세기), *De litteris, De syllabis, De Metris*, v. 1286.

2) 예컨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2016)는 자신의 소설 『장미의 이름』(*The Name of the Rose*)에서 “Books share their fates with their readers”라는 말을 남긴다.

리안데르이고, 서명은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 literarum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이다. 이 책은 종교 개혁이 한창이었던 1548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출판되었으며, 이 글에서 소개하는 책은 이 때 출판된 것 중에 한 책이다. 이 책은 한편으로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연을 지닌 것으로, 전쟁 덕분에 유럽에서 한국으로 왔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이 책은 다른 한편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도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물론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이 책과 책의 내용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긴밀한 연관은 없다.<sup>3)</sup> 하지만, 책의 내용은 이 책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에 약간의 도움과 재미를 제공한다. 이 책의 운명과 함께 책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겠다.

## 2.

책의 운명인즉 이렇다. 1951년 1월 초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소는 서울시 동숭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중국 인민군의 참전하여 한국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D. MacArthur, 1880-1964)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3) 한 심사자는 이 논문이 소개하는 이 책의 운명이 책의 내용과 얽혀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는 예컨대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여름』에서 소재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학 2』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책이 동서양을 넘나들게 된 것은 책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물론, 비블리안데르의 책에 담겨있는 도발적인 내용은 일종의 “음모론”(Conspiracy)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심사자의 지적대로, 근대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 논문의 논지를 뛰어넘는 또 다른 주제임을 밝힌다.

북한 인민군이 압록강까지 밀리자, 중국 인민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중국 인민군의 참전으로 유엔 연합군은 소위 “1·4 후퇴”를 하게 된다. 책은 “제3차 서울 전투”(Third Battle of Seoul)에 극적으로 등장한다. 유엔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영국군도 이 전투에서 서울을 방어하였다. 영국군이 담당할 지역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었던 동숭동도 포함되었다. 책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서울대학교를 방어했던 영국군인 중에는 이름 모를 원사(元士, Sergeant-major)가 한 명 있었다. 2020년 4월 14일에 책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되돌려 준 앨런 가너(Alan Garner, 1934~)씨에 따르면<sup>4)</sup>, 서울대학교를 방어하던 그 원사를 포함한 영국군은 서울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중국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서 중앙도서관에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날씨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고, 식량도 식수도 없었다. 가구와 책들을 불쏘시개로 쓰면서 버텼다. 그러던 중에 탈출 기회가 찾아왔고, 원사를 포함한 영국군 병사들은 돌진했다. 원사는 당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면, 그때 경험을 입증해 줄 증표를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낚아채고 냅다 달렸다. 이 책이 지금 소개하는 바로 그 책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살아남았고, 그 책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경험이 그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이 되었고, 책을 앞에서 말한 앨런 가너씨에게 넘기게 되었다고 한다.

훗날 책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김명환 관장에게 되돌려 준 앨런 가너씨의 손에 이 책이 들어오게 된 것은 1955년 9월이었다. 당시 가너씨의 나이는 20살이었다. 런던에서 군복무를 마치기 2주전이었다고 한다. 책을 받아서 책을 펼쳐보았는데, 책은 154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출판된 것으로, 책에는 1709년의 소장 연도와 “Doctor Du Doüet”라는

4) 이하의 내용은 Alan Garner씨가 2020년 4월 14일에 *Concerning the Common Nature of All*의 제목으로 보낸 편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소장자를 표시한 인장이 찍혀 있고, 그 옆면에 청구 기호 “50690”와 함께 한국의 한 대학 도서관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가너씨도 처음에는 책이 꽤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돌려주려고 했으나, 원사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만약 가너씨가 책을 받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가너씨가 이 책을 가지게 된 사연이다. 아쉽게도 그 원사는 떠나버렸고, 이름도 모르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군에서 제대한 지 한 달 뒤에 가너씨는 옥스포드(Oxford) 대학 모듈린(Magdalen) 칼리지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철학과 고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 책을 자신의 튜터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튜터는 관심을 보이면서, 책의 저자가 테오도르 부흐만(Buchmann)이고, 그가 스위스의 언어학자이며 이슬람 성전인 『쿠란』을 라틴어 초판본을 출판한 학자였고, 책이 매우 희귀하니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세월은 흘렀고, 가너씨는 작가가 되었다. 참고로 가너씨는 영국은 물론 서양에서 유명한 아동 환상 동화 작가이다.

가너씨는 영국의 민담을 재생시켜 현대화시키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영국 북서부 지역의 민담을 그 지역(Cheshire) 방언으로 되살리는 일에 매우 탁월하다. 1967년에 카네기 훈장(Carnegie Medal)을 받았고, 1968년에 가디언 상(Guardian Prize)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The Weirdstone of Brisingamen, The Moon of Gomrath, Elidor, The Owl Service 등이 있다. 책 이야기로 되돌아오면, 1974년 어느 날에 자신의 책을 내는 출판사의 편집자



앨런 가너(Alan Garner)

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 학자와 함께 자신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책을 보여주며 한국에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한국인 학자는 한국의 정세가 불안정하니 그냥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책을 그냥 소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너씨의 현재 나이는 84세이다.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책을 지켜주었던 자신의 손에 의해서 책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에 책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고, 이틀고서점 주인과 상의했는데, 책은 실제로 값이 나가는 것이지만, 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그는 결심했고, 집배원이 영국의 체셔에서 떠나서 32시간이 지나면 서울로 도착하게 될 책을 수거해 갔다고 한다. 가너씨는 “신의는 지켜졌고, 정의는 이루어졌다.”(Faith has been kept. Right has been done)는 말로 책을 서울로 보낸 일에 즐거워하면서, 책에 대한 여러 물음을 제기한다. 작가답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할지, 이게 정령 다인가? 이 문화유산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단지 이런 종류의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와 살아온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일까? 예컨대, 도대체 “1709년의 Doctor Du Doüet”는 무엇인가? Doüet은 어디이고, Doctor는 누구인가? 이 책은 어떻게 한국으로 갔을까? 원사는 하필 어둠 속에서 이 책을 뽑았을까? 65년 동안 책의 지킴이 노릇을 했는데, 그 다음은 뭘까?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책은 제 길을 떠나버렸다”는 말로 편지를 마친다.<sup>5)</sup>

---

5) 이 편지는 김명환 관장님이 이메일로 보내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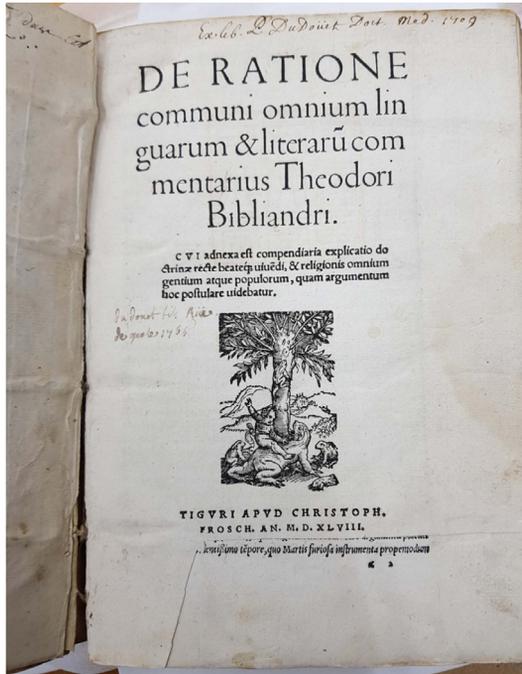
3.

가너씨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글의 의무이다. 한결 같이 답하기 어려운 물음들이지만, 우선 “Doctor Du Douët”에 대해서 답하면, 이렇다. 우선 책 표지의 오른 쪽 상단에는 “Ex libris P. du Douët doc. med. 1709”가 표기되어 있다. 책의 원래 주인은 “필립 뒤 두웨”(Philippe du Douët)였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필립 뒤 두웨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까지 살았고,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캉(Caen)이라는 도시의 전통적인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분명하다.<sup>6)</sup> 그의 후손들이 현재에도 캉 시(市)에 살고 있다. 후손 중에 일부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필립 뒤 두웨 가문이 캉 지역에서 의술에 종사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의 중간에 “Du Douët fili Rue de Geole 1765”라는 표기는 “Rue de Geole à Caen”를 가리키는 곳으로, 필립 뒤 두웨의 주소지다. 이 곳은 캉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서, 필립의 가문이 캉시에서는 유력한 집안이었고, 재산도 크게 모았던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실은 비블리안데르의 책이다. 그 면모는 [그림 1]과 같다.

표지의 하단이 가위질되어 잘려나간 부분에 눈길이 간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소장자나 소장처의 인장이 찍히는 곳이다. 이 부분이 잘려나간 것은 책을 훔친 도둑이 고서점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소장자나 소장처를 숨기기 위해서인데, 이와 관련해서, 책 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가는 펜 글씨로 쓰인 다음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

6) Philippe du Douët에 대한 정보는 폴란드 브로츠와프(Wroslaw) 대학의 말리노프스키(G. Malinowski)교수와 그의 프랑스 학과 동료 교수가 조사해서 알려준 것이다.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림 1] 필립 뒤 두웨가 소장했던 비블리안데의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의 표지.

Zurik 1548.

L'auteur profondement savant établit dans cet Ouvrage l' analogie des langues. Rare & Recherché.

취리히 1548.

이 책에서 학식이 아주 깊은 저자는 언어들의 유비(類比)를 밝힌다. 드물고 희귀한 책.

이 서지 정보는 책을 훔친 도둑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책을 구입한 고서점 주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책의 표지 중간에는 흐릿하게

“201”이라는 번호와 그 아래에 “127” 서지 번호가 붙어 있다. 이 중 하나는 고서점 주인이 책에게 부여한 번호이고, 다른 하나는 고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새로운 주인이 남긴 번호일 것이다. 비록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지녔지만, 책이 고서점에 도착했을 때 책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희귀서이고 연구서”라는 기록이 그 증거이다. 그럼에도, 책의 운명이 기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책이 필립 뒤 두웨의 손에 들어간 것부터가 책의 기구한 사연을 말해준다. 책이 당시에는 희한하고 도발적인 주장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필립 뒤 두웨는 개인 도서관을 세워 귀하고 좋은 책을 많이 수집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아래의 [그림 2]에서 잘 드러난다.

— 24 —

**Dolman J T.** (1850). *Brackley* (Angl.). *Hérald. — Virtute et veritate.*  
 (Par la vertu et par la vérité.)  
**Du Douet.** *Ex-libris Ph. Du Douet medici cadom.*  
**Douglas Sylvester.** (1785). *Londres. Hérald. — Jamais arrière. Fut*  
*d'abord apothicaire. Créé baron Glenbervie en 1800.*  
**Dourif.** *Clermont-Ferrand (Puy-de-Dôme).*  
**Dowdeswell George** (1760). *Anal. Hérald.*

[그림 2] 필립 뒤 두웨가 소장했던 서적이 거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고서적 목록.

\*출처는 *Les Ex-Libris de Médecins et de Pharmaciens*, Paris, 1908, p. 91

위의 화면은 어떤 의학 서적에서 언급되는 책이 필립 뒤 두웨의 소장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놓고 보건대, 필립 뒤 두웨의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이 수집되었을 것이다. 비블리안데르의 책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필립 뒤 두웨가 의학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비블리안데르의 책을 수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필립 뒤 두웨가 예수회 신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그림 3]과 같다.

de... du 13 Octobre 1689.  
 Procuration *ad resignandum*, passée par Nicolas - Anne Jolivet, fils & héritier dudit Guillaume Jolivet, le 19 Février 1723, en faveur des Missions de la Compagnie de Jesus, établies dans le Levant, propriétaire dudit Office, & non d'autres, & a consenti, à cet effet, que toutes Lettres de provisions soient expédiées & délivrées à celui qui seroit présenté par lesdites Missions.  
 Déclaration sous seing privé, du 29 Août 1736, du sieur Florent Lequesne, comme quoi, pourvu de provisions d'un des Offices de Notaire à Caen, il déclare que l'Office est aux Missions, & ne lui appartient point.  
 Présentation par le Procureur desdites Missions, le 10 Décembre 1736, de la personne de *Florent Lequesne*, pour être pourvu dudit Office de Notaire, au lieu & place dudit défunt Guillaume Jolivet.  
 Quittance du 8 Juin 1737, de la somme de 727 liv. 4 s. 6 den. dont 661 liv. 2 s. 3 den. en principal, & 66 liv. 2 s. 3 den. pour les 2 s. pour liv. pour ladite nomination audit Office, par les Propriétaires d'icelui, en faveur dudit sieur Lequesne.  
 Quittance du Marc d'or payée par ledit Lequesne, du 18 dudit.  
 Provisions obtenues le 21 Juin 1737 par ledit Florent Lequesne en conséquence de ladite présentation du 10 Décembre 1736.

provisions soient expédiées & délivrées à celui qui seroit présenté par lesdites Missions.  
 Nomination & présentation par le Procureur desdites Missions, de la personne de *Philippe Dudouet* le 15 Mai 1743.  
 Quittance du 18 dudit, de la somme de 550 livres, dont 500 liv. de principal, & 50 livres pour les 2 sols pour livres pour la nomination faite par les propriétaires dudit Office au profit dudit Dudouet.  
 Quittance du Marc d'or du 29 Mai 1743, payée par ledit Dudouet.  
 Provisions obtenues le 7 Juin 1743 par ledit *Philippe Dudouet*.  
 Déclaration du 5 Avril 1747, par ledit *Philippe Dudouet*, Fermier des 4 Offices de Notaires Royaux à Caen, & titulaire de l'un desdits Offices, que ç'a été à sa réquisition que le F. Roger, Procureur général desdites Missions, a consenti aux nominations faites par ades passés en brevet devant Notaires, à différens particuliers, pour qu'ils exerçassent conjointement avec lui, ledit Office, dont il étoit pourvu, & que lesdites nomination & commissions qui devoient être expédiées, ne lui donneroient pas plus de droit auxdits Offices.  
*Quatrième Office.*  
 Quittance de finance du 2 Janvier 1689 de la somme de 2000 livres.

[그림 3] 필립 뒤 두웨가 당시 예수회 사무총장이었던 로저 신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출처는 *Société Française d' Histoire de la Médecine: Liste des Membres*, Paris, 1922, p 72.

위의 기록은 필립 뒤 두웨가 예수회 사무총장인 F. Roger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필립 뒤 두웨가 비블리안테르의 책을 소장하게 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추구한 수도회였다. 하지만 종교 개혁 운동이 격화되자, 이와 같은 시대사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세력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종교 개혁주의자의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저술

한 문서나 출판한 책이 예수회에게도 싫든 좋든 중요한 문건이었다. 예수회 신부들이 소위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에 따라서 개혁주의자들의 책들을 모으고 수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필립 뒤 두웨가 비블리안데르의 책을 소장하게 된 것도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에 책은 필립 뒤 두웨의 도서관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도난당했을 것이다. 주인을 알려주는 인장이 찍힌 부분이 찢겨 나간 채, 칸시의 제올가(Rue de Geole)와 Du Douet 가문을 모르는 어떤 지역으로, 멀리 독일의 어느 지역으로 팔려갔을 것이다. 다행히도, 표지의 위와 중간에 펜으로 쓰인 소장자와 주소는 살아남았다. 이는 표지 자체를 잘라내게 되면 책의 얼굴을 없애는 것이라 상품 가치가 손상된다는 계산 덕분일 것이다. 이 정도면 가너씨가 품었던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마침내 책은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으로 되돌아왔다.<sup>7)</sup> 그렇다면 가너씨가 던진 “이 문화유산은 우리의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할까? 책은 과연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의 책일까? 프랑스의 칸시에 살고 있는 원 주인의 후손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판단이 요청되기에, 이 글이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기에는 책의 이동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손들이 책의 운명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너씨의 “하필 어둠 속에서 이 책을 뽑았을까?”에 대한 답은 이렇다. 영국 원사가 이 책을 고른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을 것이다. 책을 골랐다면, 주머니에 넣기에 적당한 책을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책은 주머니에 넣기에는 조금 크다. 어쨌든, 책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때문이

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인 김명환 교수에 따르면, 앨런 가너씨는 이 책의 반환을 위해서 2020년 2월 20일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주원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김주원 교수는 이 이메일을 김명환 관장에게 전해주었고, 책은 이 과정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30010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300105&code=990100) 참조.

었다. 이 전쟁의 전승국이었던 일본은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는다. 이 배상금 가운데에 일부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 때 구입된 것들 중에서 유럽서와 유라시아 지리와 역사와 관련된 문헌들이 경성 제국 대학의 중앙 도서관에 수집된다. 1926년부터 1931년에 구입된 도서관 도서들 가운데 “부속도서관(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특별 장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그 기초를 닦았다. 1926년 말에 로마법학자 크니엵(Ferdinand Kniep)의 장서 5.639책(내 소책자 2.611), 경제학자 쾰바르트(Werner Sombart)의 장서 3.254책(내 2.589), 동양미술사학자 뮌스터버그(Oskar Münsterberg)의 장서 366책의 장서를 구입하였고, 1927년 8~10월 중에는 야기(八木又三)의 영문학 관계 도서 973책, 테즈너(Friedrich Tezner)의 오스트리아 헌법 및 행정학 관계 도서 967책(내 소책자 377)을 구입하였다.”<sup>8)</sup> 가너씨가 궁금하게 여기는 비블리안데르의 책은 그 청구 번호가 “50690”으로 찍힌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대략 50690번째로 부속도서관에 등록된 것으로 책의 구입 시기는 1928년 3월이다. 크니엵(크니), 쾰바르트, 뮌스터버그(뮌스터베르크)의 책들의 경우, 소장자의 인장이 찍혀 있고, 비블리안데르의 책은 또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인장이 찍히지 않았다. 참고로, 크니엵의 책들이 경성 제국 대학 부속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는 1926년이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비블리안데르의 책은 일본인 서적상에 의해서 독일의 어느 고서점에서 구입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의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었을 것이다. 책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경성제국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의 운명과 함께 또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정인 즉 이렇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경성제국 부속

---

8) 정근식(2010), pp. 55-56.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책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물포(인천)항구로 옮긴다. 하지만 사정이 워낙 다급했던 일본인들은 책들을 부두에 그대로 놔두고 도일한다. 이렇게 해서 책은 다른 책들과 함께 다시 동송동에 있는 부속도서관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영국 원사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태어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언 70여년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온다. 책이 처음으로 인쇄되어서 프랑스의 어느 의사의 집에서 머물다가 독일의 어느 고서점에서 팔려서 한국으로 왔으나, 다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국으로 갔다가 “코로나” 시대에 한국으로 되돌아 왔다. 적어도 제1차 세계 대전 때문에 한국으로 왔다가 6·25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국으로 갔다고 마침내 한국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책의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 4.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지닌 책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 테오도레 비블리안데르(Thodore Bibliander) 혹은 부흐만(Buchmann)이다. 비블리안데르는 그리스어로 “책 사람”이라는 뜻이고, 독일어 이름 Buchmann도 같은 뜻을 지닌 것이다. 비블리안데르는 스위스 비숍스첼(Bischofszell)에서 1506년에 태어나서 1564년 취리히에서 사망했다. 동방학자이자 언어학자였다. 교회 개혁주의자로서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의 종교 개혁 노선을 추종하였다. 이는 비블리안데르의 라틴어 스승인 오스발트 뮈코니우스(Oswald Myconius, 1488-1552)가 츠빙글리 노선의 계승자였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비블리안데르는 1535년에 히브리어 문법서를 출판하였고, 『성경』에 대한 주해서도 저술했다. 결정적으로 1543년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대한 라틴어 번역 초판본(editio

princeps)을 바젤에서 출판한다. 이 초판본의 저본은 로버트 케틴(Robert of Ketton, c. 1110-1160)이 12세기에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옮긴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케틴의 라틴어 『쿠란』의 필사본의 발견한 사람이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라는 것이다. 이 필사본을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발견해서 비블리안데르에게 출판하도록 주었다. 한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sup>9)</sup>, 『코란』의 출판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판은 검열 아래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출판이 완수되기 전에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출판본은 압수되었고 출판업자는 체포되었다. (루터와 멜란히톤을 포함한) 개혁주의자들이 참여한 긴 협상 끝에 취리히와 스트라스부르 당국과 바젤의 시의회는 “바젤”과 “오폴리누스”라는 단어들만 책의 표지에서 언급되지 않고 이 출판본이 비텐베르크에서 구입되었고 루터가 지은 서문이 병기되는 조건으로 출판을 허용하였다.<sup>10)</sup>

라틴어 『쿠란』의 출판 과정에 대해서 약간은 길게 사족을 보탠 이유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비블리안데르의 책이 비교 종교의 관점에서 종교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언어학의 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종교 개혁의 타당성을 설파하기 위한 저술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책의 원래 제목은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et litera-*

9) Detlev Auvermann, Guillaume Postel (1510-1581), London: Bernard Quaritch, 1343 [2006] n.9 참조. 재인용 <http://www.historyofinformation.com/detail.php?entryid=1943>, 2020년 5월 1일.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inting was carried out speedily and under pressure,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authorities, but news got out before work was completed. The edition was seized and the printer arrested. After lengthy negotiations involving reformers (Luther and Melanchthon included) and authorities in Zurich and Strasbourg, the city council of Basel released the work on condition that neither Basel nor Oporinus were mentioned on the title page, and that the edition should be sold from Wittenberg and provided with a preface by Luther.

*rum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이다. 책은 하지트 아미라브(Hagit Amirav)와 한스-마틴 키른(Hans-Martin Kirm)에 의해서 2011년 제네바에서 비판정본(editio critica)과 함께 번역되어 다시 출판되었다.<sup>11)</sup> 이에 대한 서평을 쓴 카린 크루사즈(Karin Crousaz)에 의하면, 책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자주 언급되지만, 읽혀진 적은 거의 없다.”<sup>12)</sup> 비블리안데르가 직접 작성한 목차에 따르면, 책은 원래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CAPITA HVIVS COMMENTARII.		
Argumentum libri	folio	vtilitas
An ratio communis omnium linguarum & litterarum sit	3	Voluptas, euphonia, cacophonon, cacoe Syntheton
Linguarum enumeratio, Ebraic. &c.	4	Orationis partes
Quod possit hæc ratio comprehendi	24	Orationis & linguarum genera
Quod sit utilis	26	De lingua & ore
Origo linguarum, & quod Ebraica sit princeps	36	De stylo, penna, typis flameis
Origo litterarum	38	De uoce
Mutatio linguarum	46	De literis & grammat.
Mutationis linguarum causa	51	Orthographia
Mutatio scripturæ	61	Litera quid, quæ differentia
Notæ & arcana scripturæ	72	Syllaba
Chalco-graphia	80	Orthoepia
Operis dispositio quo lingua comprehen- datur absolute	84	Vitia oris & lingue
Quæ methodo	102	Barbarismus, metaplasmus
Methodus quid	85	Vt uoces migrent in alias linguas
Dialectus, sermo, oratio	105	Originatio
Sermonis finis	107	Declinationum formulæ
Regule generales linguarum omnium & principes	119	Coniugationum formulæ
Natura	122	Heterosis, solecismus
Ars	123	Ordines rerum
Authoritas, imitatio	124	De structura orationis
Antiquitas	125	Quod eloquentia & sapientia coherere ant
Consuetudo, Latinitas, peregrinitas	125	De sapientia & philosophia
Analogia, etymologia, & nomalia	127	Quæ conueniant inter omnes populos, & qui status controuersia religio- nis
Conuenientia rerum & uerborum	130	Expositio fidei catholice

[그림 4]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서문, p. 3

11) H. Amirav & H.-M. Kim (2011), *Theodore Bibliander,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et litterarum*, ed. Geneva: Droz 참조.

12) Karine Crousaz (2013) 참조.

크리스토프 볼트만(Christoph Bultmann)에 의하면, 책은 주제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재구성된다.<sup>13)</sup> 서문(pp. 1-29), 개별 언어의 기원과 발전(pp. 30-239<sup>14)</sup>), 소통 도구로서의 언어의 문제(pp. 240-503), 종교 철학의 관점에서의 언어(pp. 504-583), 결론(pp. 584-609)이 그것들이다.

## 5.

물론 엄밀한 독해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책의 학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책은 기본적으로 종교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종교 화해를 촉구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다. 저자의 말이다.

내가 모세의 스승들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아래에 결속시키고자 했을때, 우리의 최고이고 유일하신 스승을 그리스도의 교육과 연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아주 큰 물음이 나를 짓누른다. 이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공통 원리에 대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논증에 적합한 것이다. 그토록 많은 언어들과 종교의 분파들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교리와 철학(여기에서 종교가 말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의 어떤 부분에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지, 혹은 특히 다툼이 어디에서 자리잡고 있는지를 증명하도록 말이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슬람인은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up>15)</sup>

---

13) Chr. Bultmann (2012), pp. 501-503.

14) 이 페이지 표시는 2011년 아미라브와 키른의 비판정보 및 번역서를 따른 것임.

15)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 204. Quum discipulis Socratis et Mosis ipsos magistros suniunxerim, consentaneum erat scholae Christianae supremum et unicum magistrum nostrum adiungere. Sed interpellat me quaestio dignissima

종교인들 사이에서 비블리안데르의 주장이 얼마나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종교 간의 화해를 촉구하는 그의 말에 담긴 메시지의 보편적인 당위성은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종교들 사이에 있는 불일치의 원인을 『성경』의 「창세기」, 제11장 1~9절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에서 찾는다. 비블리안데르의 말이다.

주님께서 아담의 아들이 짓고 있던 탑과 도시를 보기 위해서 내려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라. 백성은 하나요, 모든 사람의 말도 하나다. 저들은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들을 작업으로 완성하기까지는 자신들의 생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가자. 내려가자.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흘려놓자. 그리하여 각각이 이웃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나누어 버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도시를 짓는 일을 중단했다. 여기에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모든 지역의 표면 위로 흩어 놓으셨기 때문이다.<sup>16)</sup>

---

consideratione et in primis conveniens argumento, de communi ratione linguarum et literarum, ut ostendatur, quibus in capitibus doctrinae et philosophiae, in qua religio non postremum locum obtinet, congruant homines tot linguis et sectis religionum divisi, aut in quo posita sit praecipue controversia. Quando quidem non modo Christiani et Iudaei et Machumedici discrepant in religione et doctrina, sed etiam inter ipsos Christianos est dissidium.

- 16)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 53. Descendit Dominus, ut videret civitatem et turrin, quam aedificabant filii Adam, et dixit: Ecce unus est populus, et unum labium omnibus: coeperuntque hoc facere, nec desistent a cogitantibus suis, donec eas opere compleant. Venite igitur, descendamus et confundamus ibi linguam eorum, ut no audiat unusquisque vocem proximi sui. Atque ita divisit eos Dominus ex illo loco in universam terram, et cessaverunt aedificare civitatem. Et idcirco vocatum est nomen eius Babel, quia ibi dispersit eos Dominus super faciem cunctarum reionum.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비블리안데르가 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명하려는 것은 인간 언어의 기원은 하나라는 점이었다. 흥미롭게도, 비블리안데르는 “하느님”이 흐트러 놓아버린 결과로 생겨난 복수의 인간 언어들에 숨어 있는 단수의 인간 언어를, “아담의 언어”(Adam’s language)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 시도는 비블리안데르가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들에 결과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 종교 간의 불화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블리안데르는 그 해결 방안의 한 단초를 「요한복음」 제10장 16절에서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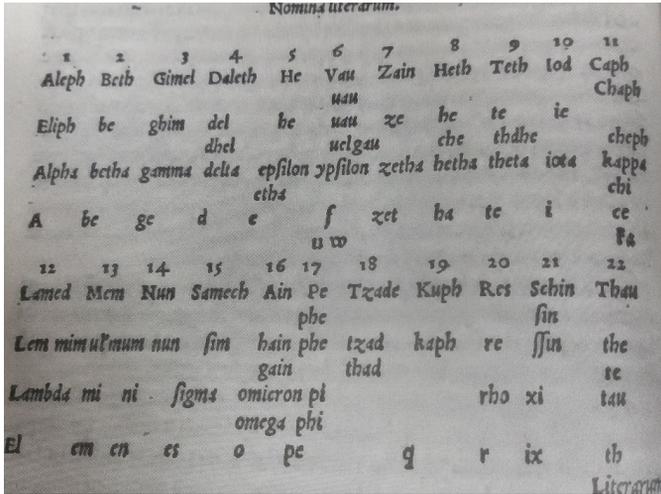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sup>17)</sup>

비블리안데르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을 방패로 삼아, 비록 바벨탑은 사라졌지만, 갈라져 흩어진 인간 언어들에 남아 있는 바벨탑의 DNA를 추적하기 위해 두 방식을 취한다. 하나는 문자들의 쉽게 변하지 않는 기원이 하나임을 추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언어들 사이에 있는 공통성을 밝히는 방식이다.

먼저, 문자의 기원과 관련해서 비블리안데르는,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모든 문자의 기원은 히브리어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로 문자들의 명칭을 제시한다. 다음 [그림 5]와 같다.

비블리안데르는 알파벳 명칭의 비교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랍어, 그리스어, 라틴어의 알파벳, 나아가 모든 문자의 뿌리가 히브리어에 있다고 주장한다. 비블리안데르가 한자를 알았다면 어떤 주장을 했을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비블리안데르가 책을 출판한 지 100여년 뒤에 키르허(Athanasius Kircher, 1602-

17) Amirave & Kim (2011), p. 104, p. 504.



[그림 5]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 64.

1680)가 『이집트인 오이디푸스』(*Oedipus Aegyptiacus*, 1652~1655)에서도 인간 언어의 기원이 하나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데, 이 증명을 위해서 한자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참고로, 『진기한 나라, 중국』<sup>18)</sup>에서 먼젤로는 중국 문자와 “보편 언어”(Universal Language)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로마 고전의 재발견을 통한 고전의 번역과 주해가 중심을 이루어 있던 서양의 교육과 연구에 동양의 학문[예들 들면, 『주역』(周易)과 같은 책]과 한자(漢字)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sup>19)</sup> 요컨대, 화학, 의학, 수학, 음악은, 자연 언어의 표기 체계가 아닌 그 학문만이 공유하고 있는 표기 혹은 기호 체계를 사용하자는, 예컨대, 화학의 개별 원소들을 표시하는 표기 체계나, 수학의 부호 체계들, 또한 음악의 기보와 음가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만들어 사

18) 이 책은 이향만, 장동진, 정인재 교수의 노력으로 한글로 번역되어 2009년 나남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9) 염정삼(2010), pp. 345-371 참조.

용하자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17세기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먼젤로의 “중국 문자와 보편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이런 기호와 부호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 데에는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형 문자 체계인 한자가 상당 정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적으로, 자연의 탐구를 위해서 보편 언어 혹은 근원 언어 혹은 “진정한 문자”(real character) 체계를 개발하자고 최초로 제안했던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문자를 사용하여 글을 쓴 것은 극동의 왕국, 중국에서였다. 진정한 문자는 대체로 글자나 단어가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한다. 언어가 미칠 수 있는 지역보다 문자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서로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sup>20)</sup>

인용은, 베이컨의 보편 언어에 대한 기획이 한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함을 보여준다<sup>21)</sup>. 물론, 베이컨의 보편 언어 기획의 기저

20) 번역은 『진기한 나라, 중국』, pp. 298-299에서 재인용하였다. 베이컨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understand further that it is the use of Chyna, and the Kingdomes of the High Levant, to write in Characters reall, which expresse neither Letters, nor words in grosse, but Things or Notions, in so much as Countreys and Provinces, which understand not one anothers language, can neverthesse read one anothers Writings, because the Characters are accepted more generally, than the Languages doe extend.”, Francis Bacon. The Oxford Francis Bacon, ed. M. Kierman (2000). Oxford. 4.60 참조.

21) 『학문의 진보』(Advancement of Learning) 참조. 베이컨에게 한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 책은 아마도 후안 곤살레스 데 멘도사(Juan Gonzalez de Mendoza, 1545-1618)가 지은 『중화 중국의 문물과 의례와 견습에 관한 역사』(Historia de las cosas, ritos y constumbres, del gran Reyno de la China. Rome 1585, 1586년 개정)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진기한 나라, 중국』, p. 299을 참조하였다.

(基底)에는, 스페인 마요르카 출신 신비주의 신학자였던 라이몬두스 룰루스(Raymondus Lullus, 1232-1315)의 “조합주의”(ars combinatoria)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 체계가 자연학의 부호와 기호 체계 개발과 기획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도 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보편 언어를 개발하자는 베이컨의 제안은, 그가 주장하듯이, 새로운 학문들이 사용하게 될 기호 체계 (*Novum Organon*) 혹은 부호 체계의 표준화와 통일화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논쟁을 촉발하였는데, 그의 제안은, 존 윌킨스나 조디 달가르노와 같은 그의 후계자들,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과 같은 학자들, 독일의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와 같은 철학자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영국에서는 1662년에 왕립 아카데미가, 파리에서는 1666년 학술 아카데미가, 베를린에서는 1700년에 학술 아카데미가 창설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이 시기는 베이컨이나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와 같은 근대 과학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였던 때였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근대 학문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연의 사물들을 자연 언어의 표기 체계가 아닌 새로운 기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기획함에 있어서 동양의 사유 체계와 언어 체계가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새로운 기호와 부호를 사용하는 학문 운동은, 또한 학술 아카데미와 같은 학회의 창설은 서양의 학문 체계를 이전까지의 기독교 교리 중심의 교육 방식과 그리스-로마의 고전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sup>22)</sup>

이 전통의 확립과 관련해서, 물론 근대 학문 세계가 열림에 있어서

---

22) 안재원(2014) 참조.

비블리안데르의 책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비블리안데르의 문자에 대한 고찰도 나름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언어도 하나였지만 문자도 하나였다는 비블리안데르의 입장이 언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지, 설령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어쨌든 비블리안데르가 문자를 하나로 보는 시각은 소위 “아담의 문자”(Adamic character)<sup>23)</sup>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이다.

플라톤이 말하듯이, 우리는 문자를 처음 발명한 이를 저 신을 혹은 신적인 인간을 다른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저 신적인 마음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키케로와 휘타고라스가 생각했듯이, 그토록 많은 소리들의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구분해서 정리했고, 그것은 인간 언어의 기본 요소들을 적합한 표기로 표시하고 그것은 신성한 역사의 증언으로 모든 사물에 가장 적합한 이름들(하느님도 또한 이것들을 인정했다)을 부여한 아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성이 힘은 자신을 작용함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인간 이정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문자들의 표시와 기호들로 언어를 또한 그것으로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상자처럼 자신을 책에도 넣어 두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옮긴다. 비록 그들의 몸이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말이다.<sup>24)</sup>

23) “아담의 문자”(Adamic Character)라는 용어는 널리 통용되는 인간의 원시 언어를 지칭하는 “아담의 언어”(Adamic Language)를 빗대어 내가 만든 용어이다. 한 심사자는 통용어는 “아담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비블리안데르가 자신의 책에서 언어의 하위 분야인 문자의 공통 기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4)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 43. *Quem enim alium putemus illum deum aut deum hominem, ut Plato ait, qui literas primus invenerit? Aut cui potius*

인용에 따르면, 문자는 인간 언어의 표지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이성의 표지이다. 이런 힘을 부여한 이가 아담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문자”라는 용어의 사용이 과감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것은 아니다. 인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블리안데르 자신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블리안데르의 “아담의 문자”론이 대략 60년이 지난 뒤에 베이컨이 펼치는 자연 세계를 표기하는 진정한 문자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문헌 조사가 요청된다. 아담의 문자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 자연 언어의 평등성에 대한 논증을 넘어서서 자연 세계를 표기하자, 진정한 문자를 개발하자라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편 언어, 더 정확하게 “진정한 문자”와 관련된 학술적인 담론에 이제는 비블리안데르의 문자 기원에 대한 고찰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문자는 하나’라는 고찰을 바탕으로 비블리안데르는 인간 언어가 하나임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블리안데르는 인간 언어들의 역사적인 기원을 거슬러 찾아올라가면, 그것이 아담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복수의 인간 언어들의 본성에 깔려 있는 단수의 인간 언어, 즉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본성을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런 시도는 서양 고대의 문법학이 근세의 언어학으로 전

---

tribuamus illum divinum animum, ut Ciceroni et Pythagorae visum est, qui tot vocum discrimina revocavit ad certas leges, quique elementa sermonis humani aptis notis consignavit, quique illi ipsi Adamo, qui testimonio sacrae historiae omnibus rebus imposuit aptissima nomina, quae deus quoque probavit? Etenim, quum vis rationis tum operibus, mihi nullum apparet opus praestantius humanae rationis, quam quod notis et signis litterarum sermonem, quo foras sese profert, etiam seipsam depingit, ac deponit in librorum velut arcas conservandam, ac transponit sese in alios animos, quorum corpora tum locorum tum etiam temporum intervallis maximis dirempta sunt.

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sup>25)</sup> 즉 문법학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경계를 뛰어넘어 보편 언어학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그의 시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블리안데르는 언어들 사이에 있는 바벨탑 DNA를 찾으려고 시도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이렇게 물으면서 탐구를 시작한다.

An sit ratio communis omnium linguarum et literarum.

모든 언어들과 문자들에게 공통된 원리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 방식은 서양 수사학의 핵심 이론 가운데에 하나인 추정 쟁점(status coniecturae)의 한 양식이다.<sup>26)</sup> 이는 비블리안데르가 키케로 수사학의 열개로 자신의 탐구를 설계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비블리안데르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저자가 키케로였다. 키케로 이외에도 퀴틸리아누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책에는 자주 등장한다. 이는 비블리안데르가 중세의 교리 문답 중심의 신학 전통과는 다른 길을 추구했던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준다.<sup>27)</sup> 아무튼, 위의 물음이 지닌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언어 탐구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각설하고, 전통적인 개별 언어에 대한 문법학에서 이른바 근세 언어학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비블리안데르를 근세 언어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

---

25) 이와 관련해서는, George J. Metcalf (2013), *On Language Diversity and Relationship from Bibliander to Adelung*, ed. Toon Van Hal & Raf Van Roo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을 참조하시오. 이 책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활동한 비블리안데르, 게스너, 클루베리우스, 그로티우스, 스코텔리우스의 언어에 대한 논고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26) 이와 관련해서는 안재원(2010), pp. 37-68.

27) Jon Balscrak (2017), pp. 684-697 참조.

밀한 문헌 추적이 요청되지만, 언어에 대해서 그가 던진 물음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문법학의 관점에서는 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블리안데르의 언어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블리안데르의 언어학이 방법론적으로는 키케로의 친구였던 바로(Varo)의 유비론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고서점 주인 혹은 다른 어떤 학식이 있던 사람이 책을 “언어들의 유비”에 대한 것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의 문법학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바로 문법학의 특징은 소리와 의미의 분리에 있고, 소리들 사이에 있는 동일함과 차이를 범주화하고, 형식화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징은 근세 언어학이 바로의 문법학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준다.<sup>28)</sup> 수학적 비례 원리를 이용해서 언어 규칙을 의미에 지배받지 않은 형식의 규칙화하고 일반화시켰다는 점이 바로 문법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sup>29)</sup> 그런데 바로는 언어 규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라틴어에만 국한해서 보았다. 하지만 비블리안데르의 언어학은 바로의 문법학을 뛰어넘어 언어 유비 원리를 언어 일반으로 확장해서 검증하려고 시도했고, 이 점에서 비블리안데르의 언어학은 바로 문법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블리안데르의 말이다.

첫째, 나는 언어와 문자를 논의함에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문학과 자유 교양 학문을 닦은 사람들임에도, 이들은 언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전혀 가지고 있다. 나는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마음 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다. 예컨대 글을 해석하거나 글로 쓰거나 말로 하면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와 같은 낯선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28) 안재원(2009a), pp. 55-76 참조.

29) 안재원(2009b), pp. 1-35 참조.

능력을 언어의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실을 파악함에 있어서, 언어의 힘을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과 세속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만약 대중을 이해시키거나 대중이 그들 자신을 이해한다면, 자신들이 정말 훌륭하게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앗시리아인들, 페르시아인들과 통치와 지혜와 덕성으로 탁월했던 종족들은 나랏말을 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배웠다고 알고 있다. 세 번째 부류에는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속한다. 이들은 돈이 되는 일을 숙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아예 쓸모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고 혐오한다. 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임을 증명하겠다. 먼저, 그리스도 교회의 경배에 유익함을 증명할 것이다. 각자의 나랏말을 배워야 함도 증명할 것이다. 이른바 야만의 언어도, 그렇게 불리지만, 원리가 없지 않고, 배우는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힘든 어려운 일은 아님도 증명할 것이다. 만약 그가 사태를 제대로만 파악한다면 말이다. 마르스(Mars, 전쟁의 신)의 광기어린 무기들이 미쳐 날뛰며 무사(Musa, 문예의 신들) 여신들의 목소리를 짓눌러 버리고 있는 이 험난한 시기에 이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sup>30)</sup>

인용의 마지막 문장은 이 책이 종교 전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저술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비블리안테르의 언어학이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야만의 언어도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한다. 언어를 바라보는 비블리안테르의 관점은 혁명적인데,

30)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p. 2-3.

이런 관점은 20세기에 들어서 언어인류학이 발전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어와 라틴어만이 진정한 언어라고 여겼던 시대에 세속의 통속어도 중요하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나랏말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일갈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서양 근세 언어들이 라틴어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문명어이자 학술어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초기의 모습과 이 시기에 생겨난 언어관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비블리안데르는 서양의 언어들이 그 기원은 히브리어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도 그 뿌리는 히브리어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비블리안데르는 독일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옮기기에 적합한 언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그가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독일어도 그리스어나 라틴어에 못지않게 신성한 언어이고 문명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문명어란, 중세의 3학이 가능한 언어를 말한다.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이 그것들이다. 비블리안데르의 말이다.

오늘날 토이토니카라 불리는 독일어는 무엇인가? 이는 결코 어둡지 않다. (...) 독일어 자체와 관련해서, 그것은 문법, 변증술, 수사학을 허용하고, 원리와 주체 자체에 있어서 로마인들의 표현에 밀리지 않는다. 독일어는 실제의 작용에 있어서 그 원리를 수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나도 또한 모국어를 정확하게 배우는데에 쏟아부은 정성과 노력을 결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던 간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공부가 좋은 사람들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up>31)</sup>

31)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p. 17-18. Caeterum quae lingua sit Germanica et Teotonica hodie, minime est obscurum: et quae olim sit. Quod vero linguam ipsam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블리안데르는 모국어인 독일어에 대한 자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의식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세어들은 라틴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를 촉발한 것이 비블리안데르의 책이다. 흥미로운 점은, 어쨌든, 이를 정당화하는 논증의 출발점을 종교에서 잡는다는 것이다. 비블리안데르의 말이다.

나의 시도가 성급하거나 경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글들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글들과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쓸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종교에 대한 설명에 언어와 글자의 원리가 결합해야 한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비난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 책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오히려 전적으로 이를 요구할 것이다. 언어들에 대한 지식은 종교를 가르치고 널리 알리는 데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이다.<sup>32)</sup>

(『서문』 p. a 2)

인간 언어에 대한 이와 같은 반성과 통찰을 담고 있는 비블리안데르의 책은 1548년에 취리히에서 출판된다. 앞에서 언급한 키르허의 사

---

Germanicam adinet, eam legibus grammaticis et dialecticis et rhetoricis parere, necque cedere quidem eloquio Romano ratione et ipsis rebus deprehendet, quem non piegebit operaem ea in re sumere. Me quidem non poenitet operae et diligentiae, quam linguae patriae exactius cognoscendae impendi et quidquid mihi videor consecutus, candide aliis etiam imperitiam, ubi sensero meum studium bonis et cordatis hominibus non displicere.

- 32) 『모든 언어와 문자의 공통 본성론』, p. 2. Mihi quidem contumacia et petulantia non probantur; sed puto licere debere litterarum et doctrinae Christianae tractatoribus libere de litteris et religione loqui et scribere. Religionis autem explicationem adiunctam esse rationi linguarum et literarum, nemo indignabitur aut vituperabit, qui dispositionem operis totam aestimavit; quae omnino hanc tractationem postulavit: siquidem religioni docendae et propagandae praecipue inservire debet linguarum notitia.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연인지 아닌지 필연인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비블리안데르의 책이 출판한 이후에 유럽의 지성계에서는 소위 인간 언어 기원과 근세어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sup>33)</sup> 1563년에 피테르 부뤼헬(Pieter Brueghel, c.1525~1530-1569)이 그린 바벨탑에 대한 그림(그림 6)이 이 논쟁에 대한 방증 가운데 하나이다.<sup>34)</sup>



[그림 6] 피터 부르헬의 「바벨탑」, Pieter Brueghel, c.1525~1530-1569

- 33) 이를테면, 프랑스의 자명성과 모국어의 명증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선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34) 물론, 비블리안데르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은 아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만 아담의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벨탑이 주목되었고, 이 점에서 바벨탑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에 비블리안데르가 한몫 거들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뤼헬의 그림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 6.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책의 운명과 책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 어찌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책을 한국으로 보낸 가너씨가 궁금해 했던 의문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글이 선뜻 답을 줄 수 없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책의 수집의 경우 어찌되었든, 책의 원래 주인 필립 뒤 두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책의 저자인 비블리안데르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존중을 해주어 하는 것일까? 전자에 관해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필립 뒤 두웨의 후손들이 프랑스의 캉시에 아직도 살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최소한 책의 소재와 사연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예의라고 본다. 후자와 관해해서는, 책에 담긴 목소리는, 프랑스의 것도 아니고, 독일의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영국의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한국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것이다. 적어도 그 목소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서양 역사가,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이 근세와 현대로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을 한국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 책에 담긴 목소리를 한국어로 옮겨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어느 도적이 다시 이 책을 훔쳐 간다고 해도, 한국어 옮겨 심어진 책은 훔쳐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책의 운명을 걱정하는 가너씨에게 보내는 답일 것이다. 참고로, 책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2020년 6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에 전시되어 있다. 비블리안데르 책의 실물에 대해 궁금한 독자가 있다면, 중앙도서관에 만들어진 특별전을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다. [그림 7]의 사진은 특별전의 개막식을 담은 것이다.<sup>35)</sup>



[그림 7]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 특별전 개막식

---

35) 이 사진과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송지형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고문헌

### 【자 료】

- Bacon, F. (1605), *The Oxford Francis Bacon*, ed. M. Kierman (2000), Oxford. 4.60.
- Bibliander, T. (1548),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et litterarum*, ed. H. Amirav & H.-M. Kirn (2011), Geneva: Droz.
- Garner, A. (2020. 4. 14), *Concerning the Common Nature of All* (Letter).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 literarum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 (1548), Zurich.
- Maurus, T., *De Litteris Syllabis Pedibus et Metris*, ed. Van Lennepe (2012), Nabu Press.
- de Mendoza, J. G. (1585, 1586), *Historia de las cosas, ritos y constumbres, del gran Reyno de la China*, Rome.
- Les Ex-Libris de Médecins et de Pharmaciens*, Paris, 1908.
- Société Française d' Histoire de la Médecine: Liste des Members*, Paris, 1922.

### 【논 저】

- Balsarak, J. (2017), The Renaissance Impulses that drove Theodor Bibliander to publish Machumetis Saracenorum, in *The Muslim World* 107.
- Bultmann, Chr. (2012), Theodore Bibliander.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et litterarum commentarius*, In *Renaissance Quatterly*, 65-2.
- \_\_\_\_\_ (2012), Theodore Bibliander.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et litterarum commentarius*. In *Renaissance Quatterly*, 65-2.
- Copeland, R. & I. Sluiter (2012), Terentianus Maurus, De litteris and De syllabis, CA. 300, in *Medieval Grammar and Rhetoric: Language Arts and Literary Theory, AD 300-1475*, ed. Rita Copeland & Ineke Sluiter, Oxford.
- Crousaz, K. (2013),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et literarum commentarius. Theodore Bibliander*, ed. and Trans. Hagit Amirav and

Hans-Martin Kim (2011), Geneva: Droz, in *Travaux de Humanisme et Renaissance* 475.

Metcalf, G. J. (2013), *On Language Diversity and Relationship from Bibliander to Adelung*, ed. Toon Van Hal & Raf Van Roo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Mungello, D., *Curious Land, China*, 번역 이향만, 장동진 (2009), 정인재, 나남출판사.

안재원(2010), 「키케로(Cicero, 기원전 106년~43년)의 쟁점 구성 이론(status)에 대하여: 쿠리우스 소송(causa Curiana)를 중심으로」, 『법학』 제51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_\_\_\_\_ (2009 a), 「바로(Varro)의 문법론과 소쉬르(Saussure)의 언어학 비교」, 『언어학』 53.

\_\_\_\_\_ (2009b), 「예외론(anomalía)과 유비론(analogía): 문법의 성립과정 탐구 1) — 바로의 라틴어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5.

염정삼(2010), 「서양인에게 비친 중국문자 — 키르히의 인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33집.

정근식(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제87집.

#### 【인터넷 자료】

김명환(2020.6.9). [정동 컬럼] “70년 만에 전장에서 돌아온 책”,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30010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300105&code=990100).

안재원(2014), 「17세기에 시작된 동아시아의 세계화」, 『아포리아 북리뷰』, [http://www.aporia.co.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100&page=5](http://www.aporia.co.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100&page=5).

Auvermann, D. (2020.5.1.), Guillaume Postel (1510~1581), London: Bernard Quaritch 1343[2006] n.9). <http://www.historyofinformation.com/detail.php?entryid=1943>.

362 인문논총 제77권 제3호 (2020.08.31.)

원고 접수일: 2020년 7월 2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10일

ABSTRACT

---

Theodore Bibliander (Theodor Buchmann, 1509-1564):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  
literarum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

Ahn, Jae-Won\*

This paper aims to trace and track the *fata libelli* of a copy of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 literarum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 This book belonged to Philippe du Dout who lived at Caen in France in the 18th century. It was stolen and sold to a bookshop in Germany. After World War I, it ended up in the collection of the library of Kyung Seong Imperial University.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t was brought to England by an English soldier and handed to Alan Garner, an English novelist. On April 14, 2020, he sent it back to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Library. This book deserves our attention in that it puts a stress on the equality of language, the utility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and the importance of vernacular language. It also offers us a clue on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ancient grammar into modern linguistics.

---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